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 시안 연구

석문주 · 권덕원 · 최은식 · 함희주*

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대학 시절에 배우는 심화 과목들도 교육대학들 사이에 일정한 '공통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 있는 공통성의 추구를 위하여 각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의 심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의 심화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주제어 : 심화과목, 심화과정, 교육대학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개별성, 교육과정의 공통성, 표준화

차 례

I. 서 론

II. 선행연구 분석

III.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심화과목의 구성 현황

IV. 음악교육과 심화과목의 구성 시안

1. 과목 구성의 원칙
2. 심화과목의 요목

V. 결 론

* 석문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권덕원(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최은식(건국대학교 교수), 함희주(공주교육대학교 교수)

I. 서 론

교육대학교의 음악교육과에서 제공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하나는 교육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음악교육 과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악교육과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심화 음악교육 과목’이다.

음악과 심화과목에 어떤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교육대학마다 다양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교과교육학(음악교육학, 교재연구 등)을 중시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교과내용학을 중시하는 대학들이 있다. 교과내용학 중에서도 개인적 기능(화성학, 시창-청음, 성악실기, 피아노실기, 국악실기 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는 앙상블 능력(합창, 합주 등)을 강조하는 대학들도 있다. 이처럼 대학별 강조점의 차이로 인하여 각 대학들은 개별화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교육대학의 졸업생들은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가에 따라 음악교육에 관하여 훈련받은 능력의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각 교육대학들이 ‘대학교육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각 교육대학의 음악교육 심화 과목들의 내용과 수준을 개별성의 측면만 유지되고, 교육대학간의 공통성의 측면이 도외시된다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전국의 11개 교육대학은 ‘초등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으므로 각 교육대학의 음악과 심화과정 프로그램 역시 일정 부분 일반성과 표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함희주 외, 2005, 163-164). 현행의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국정 체제 속에서 단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 교과서가 검정 체제가 된다고 하여도 음악과 교육과정은 여전히 국정의 틀 속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각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정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하게 개별화되어 있음에 대하여 그 타당성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의 목표, 내용, 방법을 담기 위한 공통성에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각 교육대학의 음악과 심화과정 프로그램이 오늘날처럼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각 교육대학 음악과 교수진 구성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전공별 구성에 큰 차이가 있고, 같은 전공(예: 피아노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각 대학별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각 교육대학 음악과 교수진의 구성에 차별성이 생기게 된 것은 일면 자연스런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차별성이 심화되면 각 교육대학 음악과 졸업생 사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부 교수진의 수업 내용이 초등음악교육의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이 강하게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한 교사 훈련 내용의 불균형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교수의 전공이 곧 심화 과정의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그러한 체제는 교수진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대학의 심화 과정의 내용은 변하지 않게 된다.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5년-10년에 한번씩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 20-30년 정도를 변하지 않는 심화 과정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대학 음악과의 심화과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심화 과정을 마련하는 일은 장차 교육대학의 음악과 교육의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련된 심화 교육과정으로 4년간 교사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보다 혁신적이고 발전된 음악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의 각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심화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에 기여할 수 있는 시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II. 선행 연구 분석

신계휴(1989)는 그 당시 전국 11개 교육대학 음악과의 심화과정을 비교 분

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화과정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음의 <표 1>은 그 당시의 전국 11개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정 구성의 현황이다. 신계휴는 음악교육 심화과정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심화 과정 총 이수 학점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음악과 교육을 심화하는 내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음악과 교육에 관한 학문적인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두드러진 점은 심화 과정에서 ‘음악교육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다.

석문주(1995)는 전국 11개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정 과목의 구성을 비교 분석하면서(표 2), 음악과 심화 과정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음악교사, 대학의 음악 및 음악교육학 교수들의 강력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한다.
-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유인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이론과 실제 교육을 통하여 학교 음악 교육을 책임질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음악과 심화 과정의 학점 수를 늘린다.
-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 예-체능 전담제가 조속히 정착된다는 것을 전망하면서 예-체능 3분 수강제를 실시한다.
- 음악과 심화과정은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전공표시가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악전담교사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와 그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하여 실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참여 혹은 운영하고 있는 음악과 교사교육 담당교수는 교육과정의 학문성과 실제성을 대학 수준에 맞도록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기관(대학), 협조기관(일선 협력학교와 부속학교),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단체는 상호 협조하여 교원양성에 있어서 아카데미즘을 살리고 실제 직무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각종 교육시설 및 교구를 완비해야 한다.
- 음악교사 평가 인증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표 1> 전국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 교과목 구성(1989)

()안은 학점수

학기 대학	3	4	5	6	7	8
서울교대	음악이론(3)	화성법(3)	음악교육론I(3) 작곡법(3)	음악교육론II(3) 성악, 피아노 중 택1(3)	음악교육연구(3) 피아노II, 합창 중 택1(3)	음악사, 기악 중 택1(3) 국악실기, 합주 중 택1(3)
부산교대	시창-청음(3)	피아노실기(3)	화성법(3)	성악실기(3) 작곡실기(3)	음악사(3)	관현악실기(3)
광주교대			시창-청음(3)	화성학(3)	피아노실기(3) 합창(3)	작곡(3) 합주(3) 국악II(3)
대구교대			성악실기(3)	음악과교육론I (2) 국악교수법(2) 피아노실기II(2)	가창(2) 기악합주(2) 피아노실기II(2)	음악교육론 II(3) 창작(3)
인천교대	기악(2)	국악이론(2) 피아노, 관현악기 중 택1(2)		성악(3)	국악실기(2) 화성론(2) 한국음악교육 연구, 서양음악 교육연구 중 택1(2)	합주(2) 음악분석(2) 음악교육론(2)
춘천교대			피아노실기(3)		성악실기(3) 기악실기(3) 합창-합주(3)	건반화성(3) 작곡실기(3) 음악교육(3)
청주교대			기악실기(2) 피아노실기(1) 성악실기(2) 음악이론- 국악(1)	기악실기(1) 피아노실기(2) 성악실기(1) 음악이론- 국악(2)	합창지도법(3) 합주지도법(3)	창작지도법(3)
공주교대	피아노I(1) 성악(2)	피아노I(1) 기악(2)	피아노II(1) 국악I(3)	피아노II(1) 국악II(3)	음악양식과 감상(3)	작곡(2) 선율과 화성(2)
진주교대		기악(3)	성악(3)	합창(3)	합주(3) 화성 및 대위법(3)	음악사(3) 작곡법(3)
전주교대		피아노실기(3)	기악실기(3)	합주(3)	화성법-창작(2) 건반화성-반주 법(2)	성악실기(3) 합창-지휘법(3)
제주교대	화성학(3)	대위법(3)	음악형식 및 분석(3)	기악이론 및 실기(3)	성악이론 및 실기(3) 작곡이론 및 실기(3)	음악사(3)

<표 2> 전국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정 교과목 구성(1995)

교대 과목명	진주	대구	청주	부산	인천	공주	전주	광주	춘천	서울	제주
피아노	3	4(5)	4(8)	4(7)	2(선)	3(5)	3	3(4)	5	2(4)	
성악실기	3	3	3(6)	2(4)	3(4)	3	3	3(4)	2	2(4)	
기악실기	3	2	2(4)	3(6)	2(선)	2	3			2(3)	
국악실기		2(3)	2	2(4)	2(4)	3(5)	3	4(5)	3	2(3)	
국악이론					2						
시창청음		2(3)		2					2		
창작	3	2	2(4)	2(4)		2	3	3(4)	3	2(3)	3
음악이론	2				2(3)	2		2	2	3	3
음악사				2						2	2
합창	3	2	3	2(4)		2(3)	3	3(4)	2	2(3)	2(3)
합주	3	2	3		2(3)	1	3	3(4)	2	2(3)	2(3)
감상						1					
교육론		2		2	2	2				2	3
한국음악 연구					2						3
교재분석					2						
대위법											3(4)
세미나			2								
학점수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시간수	21	24	32	35	27	27	21	27	21	30	25

석문주는 이 논문에서 심화과정의 모형과 함께, 초등학교의 음악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목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심화과목의 구성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와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제는 각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의 교수진들이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의 흐름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이해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대학 음악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음악과 심화과정의 내용과 구성을 합리적으로 정돈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그 기초적인 논의를 위하여 2004년에 조사된 각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목의 내용과 구성의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공통성’을 추구하는 시안을 개발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Ⅲ.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 과정 교과목의 구성 현황

2004년에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하여 전국 11개 교육대학 음악과의 심화 과목의 구성에 대하여 조사된 바 있었다(석문주 외, 2004).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의 심화과정의 총 학점은 최저 20학점(서울교대)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30학점(부산교대)에 이른다는 점이 밝혀졌고, 과목별 이수학점과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과목당 1-3학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점수와 시간수를 일치시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학에 따라서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1학점을 2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6개 대학(경인, 공주, 서울, 전주, 진주, 춘천)은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5개 대학(광주, 대구, 부산, 청주, 제주)은 필수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각 교육대학 음악과의 심화 과목의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또한 각 교육대학의 심화과목들을 과목명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이 된다.

<표 3> 음악과 심화과정 과목

영역	경인교대				공주교대			
심화	강좌명	학점	학기		강좌명	학점	학기	
필수					국악 I	1(2)	2-1	
					국악 II	1	2-2	
					국악 III	1	3-1	
	한국음악이론	2	2-1		가창 I	1	2-1	
	합주지도	2(3)	2-2		가창 II	1	2-2	
	합창지도	2(3)	3-1		기악	1(2)	3-1	
	서양음악이론	3	3-2		합창 I	1	3-1	
	음악교육론	2	4-1		합창 II	1(2)	3-2	
	교재분석 및 지도법	3(3)	4-1		선율과 화성	1(2)	4-1	
	한국음악교육연구	2	4-2		합주 I	1	4-1	
					합주 II	1(2)	4-2	
					음악 교육론	2	4-1	
선택	국악기악	택1	2	3-1	국악합주 I	택1	1	2-1
	기악				건반악기 I			
	국악가창	택1	2	3-2	합창연주 I	택1	1	2-2
	성악				관현악합주 I			
	멀 티 미 디 어 와	택1	2	4-2	국악합주 II	택1	2	3-1
	음악교육				건반악기 II			
총계	21(24)				21(26)			
영역	광주교대				대구교대			
심화	강좌명	학점	학기		강좌명	학점	학기	
필수	피아노 실기	3(4)	2-2		시창 및 청음	2	3-1	
	합창	3	3-1		기악지도법	2	3-1	
	합주	3	3-2		피아노 실기 I	2	3-2	
	국악이론	2	4-1		국악장단지도법	2	3-2	
	음악감상지도법	2	4-1		피아노 실기 II	2	4-1	
	성악실기	3(4)	4-1		음악교육론	2	4-1	
	작곡실기	3(4)	4-2		합창	2	4-1	
	국악실기	2(3)	4-2		국악교수법	3	4-2	
					합주	2	4-2	
					창작지도법	2	4-2	
총계	21(25)				21			

<표 3> 음악과 심화과정 과목 (계속)

영역	부산교대			청주교대		
심화	강좌명	학점	학기	강좌명	학점	학기
필수	음악개론	2	2-1	기악실기	1(2)	3-1
	합창Ⅰ	1(2)	2-1			
	합창Ⅱ	1(2)	2-1			
	국악실기Ⅰ	2	2-2	성악실기	1	3-2
	국악실기Ⅱ	2	3-1		2	3-1
	국악실기Ⅲ	1(2)	3-2		1	4-2
	피아노실기Ⅰ	2	2-1	창작실기	1	4-1
	피아노실기Ⅱ	2	3-2		1	4-2
	시창청음	2	2-2		1	4-1
	기악실기Ⅰ	2	3-1	합창지도실기	2	4-2
	작곡실기Ⅰ	1	3-1		2(3)	3-2
	작곡실기Ⅱ	2	3-2		2(3)	4-1
	음악지도법	2	4-1	음악교육세미나	1	4-1
	합주Ⅰ	1(2)	4-1		1	4-2
	합주Ⅱ	1(2)	4-2		1	4-1
	성악실기Ⅰ	2	4-1	국악실기	1	4-2
	성악실기Ⅱ	2	4-2			
	건반화성	2	4-2			
총계	30(35)			18(21)		
영역	전주교대			전주교대		
심화	강좌명	학점	학기	강좌명	학점	학기
필수	반주 지도법	3	2-2	피아노 실기	3	2-2
	음악 지도법	3	3-1	화성학	3	3-1
	국악 지도법	3	3-2	국악실기교육Ⅰ	3	3-2
	가창 지도법	3	4-1	국악실기교육Ⅱ	3	4-1
선택	국악개론	택1	3	합주 리코더	택1	3
	기악실기					
	음악교육론	택2	6	합창 가창	택1	3
	창작지도					
합주지도			작곡법 피아노문헌	택1	3	
합창지도						
총계	21			21		

<표 3> 음악과 심화과정 과목 (계속)

영역	서울교대				춘천교대			
심화	강좌명		학점	학기	강좌명		학점	학기
필수	합주지도법		2	2-1	국악지도법		3	3-1
	초등음악교육론		2	2-2	피아노 실기		3	3-2
	통합음악이론		2	3-1	컴퓨터 음악교수법		3	4-1
	합창지도법		2	3-2	동요반주법		3	4-2
	국악지도법		2	4-1	창작지도법		3	4-2
선택	오르프교육론 디지털피아노 동요작곡	택1	2	2-2	서양음악사 가창지도법	택1	2	3-2
	국악실기 성악실기 피아노실기	택1	2	3-1	합주지도법 국악실기	택1	2	4-1
	음악교육심리 기악합주 음악사	택1	2	3-2	감상지도법 합창지도법	택1	2	4-2
자유선택	음악교육매체		2	4-1				
택	고급음악실기지도		2	4-2				
총계	심화 16, 심화자유선택 4 20				21			
영역	제주교대							
심화	강좌명		학점	학기				
필수	화성학과 초등음악교육		3	2-1				
	초등합주지도와 음악공학		3	2-2				
	초등국악교육실기		2(3)	3-1				
	초등성악지도와 합창교육		2(3)	3-2				
	초등창작교육		3	4-1				
	초등감상교육		3	4-1				
	음악교육론심화		3	4-2				
	초등음악현장실기실습		2(3)	4-2				
총계	21(24)							

<표4> 음악과 심화과정 과목

선택: *표시

교과목 \ 학교	경인 학점(시수)	서울 학점(시수)	춘천 학점(시수)	대구 학점(시수)	전주 학점(시수)	청주 학점(시수)
음악교육론[지도법]	2	2		2	3*[3]	
음악교재분석	3					
음악교육심리		2*				
음악교육공학		4*	3			
한국 음악교육연구	2					
음악교육 세미나						2
오르프 교육론		2*				
창작지도법			3			
감상지도법			2		3	
기악지도법				2		
가창지도법			2	2		
합창지도법		2	2*	2		
합주지도법			2*	2		
반주지도법					3	
국악교수법[지도법]		[2]	3	3	3	
국악장단 지도법				2		
서양음악이론	3	2				
음악사		2*	2*			
피아노 실기		4*	6	4		4(6)
반주법[건반화성]			3 <동요>			
창작실기		2* <동요>		2 <합주>	3*	2
감상실기	2*					
성악실기	2*	2*				3
기악실기	2*				3*	2(3)
합창실기	2				3*	3
합주실기	2	2*			3*	
음악현장실기실습						
국악이론	2				3*	
국악사						
국악기악	2	4*	2		3	2
국악가창	2	<실기>	<실기>		<실기>	<실기>
총계	21(24)	20	21	21	21	18(21)

<표 4> 음악과 심화과정 과목 (계속)

선택: *표시

교대 강의	공주 학점(시수)	광주 학점(시수)	부산 학점(시수)	제주 학점(시수)	진주 학점(시수)
음악교육론[지도법]	2		[2]	3	
음악교재분석					
음악교육심리					
음악교육공학					
한국 음악교육연구					
음악교육 세미나					
오르프 교육론					
창작지도법				3	
감상지도법				3	
기악지도법					
가창지도법					
합창지도법					
합주지도법					
반주지도법					
국악교육론[지도법]					
서양음악이론			2		
음악사					3*
시창 청음			2		
화성학	1(2)			3	3
피아노 문헌					3*
피아노 실기	3*	3(4)	4		3
반주법[건반화성]			[2]		
창작 실기	2	3	5		3*
감상실기		2(3)			
성악실기	2	3	4	2(3)	3*
기악실기	1(2)		2		3*
합창 실기	2(3)/3*	3	2(4)		3*
합주실기	2(3)/3*	3	2(4)	3	3*
음악현장실기실습				2(3)	
국악이론	3(4)	2(3)			
국악사					3*
국악기악	3*	3	5(6)	3	3
국악가창	<국악합주>	<실기>	<실기>	<교육실기>	<실기교육>
총계	21(26)	21(25)	30(35)	21(24)	21

심화과목은 크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각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목들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별하여 그 비중을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석문주 외, 2004). 그 내용을 보면 필수과목에는 교과내용학 관련 과목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선택과목에는 교과교육학 관련 과목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심화과목의 구성에서 교과교육학보다는 교과내용학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음악교과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살펴보면, 크게 음악교육의 기초적인 이론 및 교수법과 관련된 과목과 실기영역별 지도방법과 관련된 과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3). 학교에 따라서 ○○지도법이라는 과목명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실기 혹은 ○○이라는 과목명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 경우 지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학교는 음악교육관련 과목에 포함하였고, 실기로 명명된 학교는 음악내용학에 포함시켰다. 과목명은 다르지만, 초등학교에서 관련된 지도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악교육의 기초적인 이론 및 교수법과 관련된 과목을 살펴보면, 경인교대의 경우 필수로 ‘음악교육론’과 ‘음악교재분석’ 그리고 ‘한국음악교육연구’가 개설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 ‘멀티미디어와 음악교육’이 개설되었다. 대구교대는 필수로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수법’이 개설되었다. 부산교대는 필수로 ‘음악지도법’, 청주교대는 필수로 ‘음악교육세미나’가 개설되었다. 전주교대는 필수로 ‘음악지도법’, ‘국악지도법’이 필수로 되어 있으며, ‘음악교육론’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서울교대는 ‘초등음악교육론’, ‘국악지도법’이 필수로 되어있으며, 선택으로 ‘오르프 교육론’, ‘음악교육심리’가 개설되었다. 춘천교대는 필수로 ‘국악지도법’, ‘컴퓨터 음악교수법’이 필수로 되어 있으며, 제주교대는 ‘음악교육론 심화’, ‘초등음악현장실기실습’이 필수되어 있다. 각 교대에 음악실기지도방법에 관한 과목이 심화과정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인교대는 ‘합창지도’, ‘합주지도’가 필수로, ‘감상지도법’이 선택으로 되어있으며, 공주교대는 실기와 관련된 지도법에 관한 과목은 없었다. 광주교

대는 ‘음악감상지도법’이 필수로, 대구교대는 ‘국악장단지도법’, ‘기악지도법’, ‘창작지도법’이 필수로 되어 있다. 부산, 청주교대는 실기와 관련된 지도법 과목은 없었다. 전주교대는 ‘반주지도법’, ‘가창지도법’이 필수로, ‘창작지도’, ‘합주지도’, ‘합창지도’가 선택으로 되어 있다. 진주교대는 ‘국악실기교육 I’이 필수로, ‘국악실기교육 II’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서울교대는 ‘합주지도법’, ‘합창지도법’이 필수로, 춘천교대는 ‘동요반주법’, ‘창작지도법’이 필수로, ‘가창지도법’, ‘합주지도법’, ‘감상지도법’, ‘합창지도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교대는 필수로 ‘초등성악지도와 ‘합창교육’, ‘초등창작교육’, ‘초등감상교육’이 필수로 되어 있다.

각 교대의 음악교육관련 과목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음악교육의 이론에 대한 과목이 있으며(‘음악교육론’, 경인, 공주, 대구, 전주, 서울, 제주교대 6개대학)이 가장 많았으며, 청주교대는 ‘음악교육세미나’, 부산교대는 ‘음악지도법’이라는 이름으로 음악교육의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영역별에 따른 지도방법에 대한 과목을 많이 제시하고 있었는데, 가창, 합창, 기악, 합주, 창작, 감상, 국악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한 과목은 모든 대학에서 한 과목 이상을 개설하고 있다. 그 외에 음악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음악과 교재분석 및 지도법(경인교대)’, ‘멀티미디어와 음악교육(경인교대)’, ‘컴퓨터 음악교수법(춘천교대)’, ‘초등음악 현장실기 실습(제주교대)’등이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초등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법에 대한 과목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내용과 관련된 과목은 서양음악관련, 국악 관련으로 또한 이론과 실기 과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양음악 관련 과목은 ‘음악이론’, ‘화성학’ ‘작곡법’, ‘피아노문헌’, ‘음악사’ 과목과 실기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피아노’, ‘합창’, ‘합주’, ‘관현악 합주’, ‘반주법’ 과목이 개설되었다. 국악관련 과목은 ‘한국음악이론’, ‘국악실기’, ‘국악합주’, ‘국악가창’ 과목이 개설되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음악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이 음악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다. 음악교육과 관련된 과목들도 다양한 강좌를 보다는 각 영역에 대한 지도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음악과 관련된 과목도 음악에 대한 기초적 이론보다는 음악실기 능력

함양에 관련된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다. 음악교육과 교수진의 인적구성에 의하여 과목이 개설되거나 가르칠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서 각 대학마다 그 특성은 있으나, 초등학교 음악을 가르치는 보편적 의미의 교사를 양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양음악이론’이 개설된 학교는 3개교(경인, 서울, 부산)이고, ‘음악사’는 2개교(서울, 진주)에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시창·청음은 2개교(대구, 부산)에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고, ‘반주법’은 부산교대에만 개설되어 있다. 서양음악 실기과목을 살펴보면, ‘피아노 실기’의 경우, 7개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성악 실기’는 8개교, ‘기악 실기’는 7개교, ‘합창’은 8개교, ‘합주’는 8개교에 개설되었다. 서양음악 이론과목은 실기과목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실기과목에 비해 이론과목의 비중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국악 관련 과목도 서양음악 관련 과목과 같이 기초이론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악 관련 과목 중 기초이론으로는 국악이론과 국악사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고, 실기과목은 ‘국악기악’, ‘국악가창’, ‘장단지도’등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국악 기초이론’은 4개교(경인, 전주, 공주, 광주)에, ‘국악사’는 진주교대에만 개설된 반면 국악실기의 경우는 교과목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11개교 모두 개설되어 있다(석문주 외, 2004, p. 15-17).

물론 교과내용학이 없이는 음악교육의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과내용학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내용과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컨대 ‘국악실기’라는 과목을 생각해 보자. 국악실기에는 기악실기, 가창실기, 창작실기가 포함될 수 있고, 기악실기에는 단소실기, 장구실기, 가야금실기, 대금실기, 해금실기, 타악기실기 등 많은 분야가 있으며, 가창실기에도 민요실기, 판소리실기, 가곡실기, 시조실기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된다. 이처럼 ‘국악실기’ 과목 안에 다양한 영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어느 교수가 맡느냐, 그 교수의 전공 분야가 무엇인가에 따라 실로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영역의 실기 과목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기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을 담당할 교수에게 그 과목의 내용 구성을 전적으로 맡겨 버릴 것이 아니라, 초등 음악교육

의 특징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능한 한 공통적이고 표준화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과목의 성격과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5> 심화과정 과목 영역별 분석

교 대 심화과정 과목분류		총 학점 (총 시수)	교과 교육학 강좌				교과 내용학 강좌			
			학 점		시 수		학 점		시 수	
			학점수	백분율 (%)	시간수	백분율 (%)	학점수	백분율 (%)	시간수	백분율 (%)
경 인		21(24)	9	43	9	38	12	57	15	62
공 주		21(26)	2	10	2	8	19	90	24	92
광 주		21(25)	2	9	2	8	19	91	23	92
대 구		21	11	52	11	52	10	48	10	48
부 산		30(35)	2	7	2	6	28	93	33	94
청 주		18(21)	2	6	2	5	16	94	19	95
진 주		21	0	0	0	0	21	100	21	100
제 주		21(24)	9	43	9	38	12	57	15	62
* 전주 음악교육론	선택	21	15	71	15	71	6	39	6	39
	무택		12	57	12	57	9	43	9	43
* 서울 오르프교육론 음악교육심리	무택	20	10	50	10	50	10	50	10	50
	1택		12	60	12	60	8	40	8	40
	2택		14	70	14	70	6	30	6	30
* 춘천 가창지도법 합주지도법	무택	21	11	52	11	52	10	48	10	48
	1택		13	62	13	62	8	38	8	38
	2택		15	71	15	71	6	29	6	29

* 선택의 경우에 따라 구분

IV. 음악교육과 심화과정 과목 구성 시안

1. 과목 구성의 원칙

심화과정의 과목 구성에 대해서는 이에 관련된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음악 실기에 관련된 전문가는 실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고, 반면에 음악교육학에 관련된 전문가는 실기보다는 음악교육론에 관한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점수(시간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의 이해와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의 분야를 존중하고, 또한 초등음악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보다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교과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각 교육대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화 과목의 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현재 각 교육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들을 최대한 반영한다. 현재 각 교육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화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각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구성원들의 이견을 최소화하는 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음악교육에 필요한 각 영역이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다. 이론, 실기, 교육학 간의 균형, 또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 간의 균형이 잡힌 심화 과목의 구성 시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심화 과목의 내용은 가능한 한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 구성을 우선으로 한다. 초등 음악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과목의 내용을 구성한다.

넷째, 국악의 비중을 적절히 반영한다.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정의 구성을 항상 교유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비중을 일치시켜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현행 교과서의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점수는 현행의 일반적인 체제를 따르기로 한다.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각 교과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커리큘럼에 음악관련 과목을 얼마나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체제(21학점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추후 교육대학 커리큘럼의 변화가 있게 될 경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실기 과목의 경우는 강의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수를 학점수의 1.5배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위의 원칙을 따라 만들어진 구성 시안을 앞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심화과정 필수 및 선택 과목 구성 시안

과 정	과 목		학점수	시간수
심화필수	한국음악사 및 이론		2	2
	서양음악사 및 이론		2	2
	피아노실기		2	3
	국악실기		2	3
	가창 및 합창 지도법		2	2
	합주지도법		2	2
	국악지도법		2	2
	음악교육론		2	2
	음악교재분석 및 지도법		2	2
심화선택	창작지도법	택1	2	2
	감상지도법			
	멀티미디어 음악지도법			
	국악가창지도법	택1	2	2
	국악기악지도법			
	국악감상지도법			
학점(시간수) 합계			22	24

2. 심화 과목의 요목

심화과목을 어느 정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에 대해서도 매우 차별화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목 내용 구성의 공통성의 확보를 위하여 각 과목의 요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심화 필수

- (1) 한국음악사 및 이론: 한국음악사, 기본 이론, 악기론, 악곡론 등을 익히고, 초등 음악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 (2) 서양음악사 및 이론: 서양음악사, 기본 이론, 악기론, 악곡론 등을 익히고, 초등 음악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 (3) 피아노실기: 피아노 연주를 위한 기본적인 실기 능력과 초등 음악 교육에서 필요한 반주 능력을 익힌다.
- (4) 국악실기: 국악 지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기 능력(단소, 장구, 가창 등)을 익히고, 초등 음악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 (5) 가창 및 합창 지도법: 기본적인 가창 능력을 익히고, 초등 음악 교육에서 가창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합창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6) 합주지도법: 초등학교에서 적합한 합주단을 조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 (7) 국악지도법: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국악의 다양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 (8) 음악교육론: 음악교육의 역사, 철학, 심리학,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장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이해하고, 초등교사로서 음악교육에 관한 교육 능력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 (9) 음악교재분석 및 지도법: 음악과 교육과정, 교과서, 멀티미디어 자료, 그 외 다양한 수업 자료의 특징과 활용방법을 익히고, 음악교육의 방법 및 교재를 스스로 탐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2) 심화 선택

- (1) 창작지도법: 초등학교에서 창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동요를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 (2) 감상지도법: 초등학생들에게 감상을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 (3) 멀티미디어 음악지도법: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서 필요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체계화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 (4) 국악가창지도법: 국악가창의 다양한 분야의 실기 능력(동요, 민요, 시조 등)을 익히고, 초등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 (5) 국악기악지도법: 국악기악의 다양한 분야의 실기 능력(단소, 소금, 타악기 등)을 익히고, 초등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 (6) 국악감상지도법: 다양한 유형의 국악곡을 분석적으로 감상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초등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감상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V. 결 론

각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의 심화 과목의 구성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 교수진들 사이에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각 개인의 입장이나 각 대학의 특수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대학 음악과 졸업생들이 거의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통성과 일반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각 교육대학 음악과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공통성의 추구'에 무관심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각 교육대학의 음악과 교수진들은 공통성보다는 현재까지와 같이 개별성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편한 일인지도 모른다. 상호간에 간섭할 일도 없고, 서로 불편한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각 대학에서, 그리고 각 교수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외형상 큰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교육대학 음악과 구성원들 스스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의 심화교육은 음악대학과도 다르고, 사범대학의 음악교육과도 다르다.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의 심화과정은 다른 대학들과 구별되는, 전문적이고 특수적인 책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성원들이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뒤로 미룬다고 그냥 해결될 일도 아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음악교육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우리의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들이 어떤 것인지 협의해 나가면서 서로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화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심화 과목 구성 시안(표6)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면서, 몇 가지 원칙들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다. 보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각 대학의 개별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심화과목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7).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저자.
- 교육부 (1998a).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저자.
- 교육부 (1998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저자.
- 길병희 외 (2004). 교사교육 : 반성과 설계. 서울: 교육과학사.
- 석문주(1995). 2000년을 향한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의 개선 연구. 연세음악연구, 3, 197-234.
- 신계휴(1989). 교육대학 음악과 교육과정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8집, 93-112.
- 석문주 외(2004).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부 위탁과제 2004-9-6). 교육인적자원부.
- 함희주 외(2004).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 부 위탁과제 2005-9-6). 교육인적자원부.
- Colwell, R. J. (1985). Program evaluation in music teacher education. *Bulletin of the Counci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81, 18-64.
- Cowden, R. L. & Klotman, R. H. (1991).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music* (2nd ed.). New York: Schirmer Books.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03). *The Praxis series: Professional Assessments for Beginning Teacher*. Retrieved Sept. 11, 2003, from <http://www.ets.org/praxis>.
- Elliott, D. J. (1992). Rethinking music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2(1), 6-15.
- Hackett, P., & Lideman, C. (2004). *Music classroom: Backgrounds Models, and skills for elementary teaching* (6th ed.). New York: Schirmer Books.
-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2003). *Professional certification standards: What a nationally certified teacher of music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Retrieved Nov. 06, 2003, from <http://www.mtna.org>.
- Olson, G. (Ed.) (1987). *Music teacher education: Partnership and process*. Reston, VA: MENC.
- Wiggins, G. (1993). *Assessing student performance: Exploring the purpose and limits of teach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

ABSTRACT

A Study on Subjects of Concentrations for Music Teacher Program in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Moonjoo Seog, Doug-won Kwon, Eunshik Choi, & Hee-Ju Ham

Teachers who graduate from the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a university of education will be, for the most part, involved in instruction of the same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a common ground must be established between all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their subjects of concen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ubjects of concentrations in the music departments of each and every university of education, and to formulate a proposal from these results. This will hopefully set a foundation for an improvement in subjects of concentration in the music education department.

In order to create such a proposal, we compared existing subjects of concentration from 11 universities. In the process, each subject was put into two major categorie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content knowledge of subject'. Constant discussion and agreement i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f subjects of concentration, and to aid the process, several fundamental rules were taken into account. First, everything

possible was done to fully reflect upon subjects currently taught at every university of education. Second, areas necessary for music education were taken into account in a balanced way. Third, the subjects of concentration were based around universal knowledge, rather than the nonessentials. Fourth, Korean music was given all necessary attention. Last but not least, all grading systems were adjusted to a general system used currently. Based on these fundamental rules, the authors have presented a proposal for subjects of concentration.

There is no doubt that subjects of concentration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s are taught with in various differences at every university. This is because every university of education operates its music education department individually, and professors feel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it. However, no matter which university of education from which they graduated, all teachers with a music education concentration must be trained to teach music at elementary schools. If they ultimately have to teach the same subject, then it is only too obvious that universities must prepare them for it in the same manner. It is, in the author's opinion, a part of a university's accountability. It is true that all universities of education have different professors, and that the curriculum has differences as well.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in the future, some standardization of the subjects of concentration must exist between all universities of education. Therefore, active discussion between professors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s of universities is necessary. It is the author's hope that this proposal will be the basis for such discussion, and that it will lead to an agreement between all universities of education.

Keywords: subjects of concentrati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ontent knowledge of subject, standardization of the subjects